

亞문화 인큐베이터...“세상과 막힘없이 소통하라”

(2) 문화창조원

콘텐츠 기획·제작·시연 3개시설

2천평 복합전시관 '문화전당의 꽃'

오는 2014년 문을 여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문화전당)은 한마디로 거대한 문화발전소다. 문화도시 광주의 핵으로서 아시아 문화의 창조적 에너지를 광주, 전국, 그리고 아시아로 뿜어내기 때문이다. 주어진 미션이 막중하다 보니 홀로 '임무'를 수행하기 힘들다. 문화전당이 최첨단 복합문화시설을 지향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듯 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의 허브'라는 전제 아래 문화창조원, 민주평화교육원, 아시아 문화정보원, 어린이 지식문화원, 아시아 예술극장 등 5개의 원이 서로 연계·교류·협업하는 독특한 체제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문화창조원은 문화전당의 콘텐츠를 생산해 이를 5개원에 보내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화전당=문화창조원'이라고 부른다.

문화창조원은 크게 문화콘텐츠기획 창작센터, 문화콘텐츠제작센터, 복합전시관 등 3개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콘텐츠기획 창작센터가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이른바 헤드역할을 한다면, 문화콘텐츠제작센터는 첨단 기술 또는 융복합기술과 작가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제품'을 탄생시키는 생산라인을 맡는다. 말하자면 문화전당의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시연하는 인큐베이터이자 '팩토리'(factory)라 할 수 있다.

복합전시관은 문화창조원의 창(窓)이자 문화전당의 꽃과 같은 존재다. 문화콘텐츠 기획센터와 제작센터에서 잉태된 콘텐츠들이 문화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시연하는 '테스트베드'의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전당의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막 생산된 시제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확정·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복합전시관은 약 2000여평의 전시면적과 최고 20m

의 천장높이로 설계된 대규모 가변형 전시공간으로 꾸며진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을 전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미술관에 비해 보다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문화콘텐츠 창작센터와 제작센터에서 생산된 상품들을 시연하지만 일반 미술관이 수용하지 못하는 비문화적 콘텐츠들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통적 형태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전시 뿐 아니라 수장, 보존, 연구의 기능에 집중하는 데 반해 복합전시관은 자체 컬렉션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컨벤션홀의 기능과 유사하다.

문화전당의 복합전시관은 크게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제1전시관은 지하1층~4층(전시면적 701평)으로 이어지는 오픈 공간이며, 제2전시관은 복합전시관에서 가장 넓은 공간(901평)으로 지하 2층~지상 1층으로 연결돼 있다.

복합전시관은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만큼 운영에서도 기존 전시관과는 다른, 차별화된 방식을 추구한다. '지역의 세계화, 세계의 지역화'를 모토로 광주와 한국, 한국과 아시아, 광주와 아시아 등을 연계시키는 다양한 전시연출과 선도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홍익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근용)에게 '복합전시관 전시콘텐츠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연구' 용역사업을 의뢰했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은 마리아 린트(미국 바드클리지 큐레이터학 연구센터 디렉터), 저스틴 오코너(호주 퀸즈랜드대 교수), 만레이 수(대만 타이페이 현대미술센터 디렉터), 김성원(서울산업대 조형예술학과 교수), 조정만(목포대 인류학과 교수), 박성현(대인시장 프로젝트 예술 총감독) 등 국내외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포럼위원회를 구성, 외국의 선진 복합문화시설 등을 벤치마킹했다.

포럼위원회는 복합전시관이 '글로벌(Global)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특정 미술관이나 전시관의 운영체계를 일괄 답습하는 대신 다양한 미술관이나 복합문화시설의 장점을 두루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가령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전시관전체와 미국 디아 아트 파운데이션(디아비전 미술관)의 지역연계, 샌프란시스코의 교육·연구개발,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의 홍보·마케팅 등 개별 미술관들의 강점을 선별흡수해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아비전 미술관 내부의 높은 천장과 전시장은 문화창조원의 복합전시관과 유사하다. 102개의 패널로 구성된 엔드워홀의 '그림자'는 전시장 면적이 넓은 디아비전 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디아 아트파운데이션의 디아비전 미술관은 지역의 세계화를 고민해야 하는 복합전시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에서 1시간 거리의 외곽에 위치한 디아비전 미술관은 2만2천여평의 전시공간을 갖춘 곳으로 미술관이 위치해 있는 장소의 특성에 맞는 작품들을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엔드워홀의 '그림자', 댄 플레민의 'V.타틀린을 위한 기념비',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6개의 회색거울'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또한 디아비전 미술관은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시프로그램 뿐 아니라 기획, 출판, 연구사업 등을 통해 콘텐츠의 내실에도 주력한다.

지난해 홍익대 산학협력단이 주최한 복합전시관 운영전략을 위한 정기포럼에서 저스틴 오코너 포럼위원은 "복합전시관이 아시아 문화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구문화'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문화의 다이나믹한 가치와 모순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지역사회(광주)가 새로운 관계형성을 위해 무엇을 담아내야 할 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용 책임연구원은 "복합전시관이 아시아성과 광주의 지역성을 어떻게 접목시키는냐에 따라 아시아 문화전당의 성패가 달려 있다"면서 "글로벌 위상을 갖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정체성과 중장기적 관객개발 등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진현 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뉴욕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의 외곽에 위치한 디아비전 미술관 전경.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 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준높은 컬렉션과 기획전시, 연구사업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세계적인 복합전시관으로 각광받고 있다. (디아비전 미술관 제공)



복합전시관의 3D시뮬레이션

제36회 고흥군민의 날 기념

꿈을 현실로 High고흥 Happy고흥 군민 화합 한마당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고흥인의 기상을 발휘하기 위한 제36회 고흥군민의 날 행사는 70만내·외 군민이 함께 아우르는 축제화합의 한마당이 되어 고흥군의 미래를 약속하는 다짐의 장이 될 것입니다.

○ 일시 : 2010. 11. 1(월) 09:00 ~

○ 장소 : 고흥 공설운동장 일원

○ 주요행사

- 식전행사: 전통농악, 치어리더댄싱 공연 등
- 공식행사: 입장식, 기념식, 고흥의 웅비
- 식후행사: 퓨전국악·한적 들노래 공연 등
- 명랑경기: 건강100세 「해운을 잡아라」 등 5경기
- 화합한마당: 읍·면 노래자랑, 홀라후프 대회 등
- 시상 및 폐회식

부대 행사

- 고흥 10경 관광사진전
- 전통 민속놀이 체험
- 고흥 8품 전시회
- 무료 일일찾집
- 어르신 건강캠프
- 먹거리장터 운영

전야제

- 일시 : 10. 31(일) 18:30 ~ 21:50
- 장소 : 고흥 공설운동장
- 내용 : 여수MBC 특집 축하쇼 멀티미디어 불꽃쇼

고흥군 · 고흥군의회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741번지
◆ 등록번호 616-81-68236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보세요!

▶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뜨아아~ 목포출발, 북동(코항)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89,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 등반 +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99,000원) 잠수함, 유람선,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목포출발 "목카투어" 89,000원

★ 일정
·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9시 또는 14:30)출발-호텔 1박
· 2일째: 제주관광-호텔 1박
·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6:50)출발. 일요일은 16:30출발
★ 출발일: 매일 출발
★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4인 1실),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

고흥(북동)출발 "북동투어" 89,000원

★ 일정
· 1일째: 북동 남해고속터미널(9-10)출발-호텔 1박
· 2일째: 제주관광-호텔 1박
·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10)출발
★ 출발일: 매일 출발(일요일 별도 문의)
★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4인 1실),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한라산 등반 15,000원

광주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69,000원 (주중+주중)
179,000원 (주중+주말)
※ 유류 할증료 별도, 성수기 기간 별도 문의

제주 올레길 스페셜 투어 1일 15,000원

[1박 2일 목카투어] 79,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3박 4일 목카투어] 119,000원 (한라산등반 + 2일 제주관광)	[2박 3일 목카투어 + 항공투어] 129,000(주중) / 149,000(주말)
--	--	---

● 농 협 ● 정정아 1079-12-183903

배편, 호텔, 펜션, 렌트카 예약

문의: ☎ 064-744-1109 (주)제주무궁화관광 | **협찬 남해고속 씨월드고속웨리**
www.jejumt.net